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12일) 2020년 6월 3일 수요일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30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봉축법어를 내리고 있다.

“인류 화합·공생 연등 켭시다”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봉축법요식 봉행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심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또한 참석 사부대중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도 기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코로나19 극복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연기해 윤사월초파일에 열리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방문자 기록 등을 철저하게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내외빈 좌석 역시 1m 이상 거리를 둬 배치돼 1만여 명이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참석인원이 1000명 내외로 줄었다.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단과 이낙연·이원욱·김영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해 불심(佛心)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에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흥서원 중 첫 번째는 ‘괴로움에 빠진 모든 이웃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 살리는 일’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라며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지난 한 달 전국 사찰의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끝에 거행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닦은 선근 공덕을 회향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석거리를 둔 조계사 봉축법요식 모습. 예년보다 참석인원이 1/10로 줄었다.

여야 대표 등 정치인 대거 참석
거리두기·열체크 등 방역 철저
강창일의원 등 불자대상 수상해
文 “스님·불자께 존경과 감사”
한달 간 코로나 극복 기도 회향

봉축법요식의 증명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대광명(大光明)의 연등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강생은 법계만유의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의 시현이다. 이는 ‘본래부처’를 선언하심이요, 생명의 존엄을 천명하심이요, 인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자들은 인류화합과 공생의 연등을 켜자”고 설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처럼 살아가자고 제언했다. 스님은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세계가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만 명의 원력보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각각 자기 색깔과 향기로 부처님 법을 꽃피우는 화엄불국토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법요식에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교 홍포에 공헌을 한 불자들을 시상하는 불자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강창일(국회의원),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 허재(농구감독), 동국대경주병원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단체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전국 주요 산사 연계한 ‘문화유산의 길’ 열린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

전국 주요 산사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치유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다가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5월 26일 서울 환구단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참 만남, 참 문화유산(Feel the REAL KOREAN HERITAGE)’을 주제로 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과 사람 간 거리를 좁히고 문화유산을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재청이 제안하는 ‘한국 문화유산의 길’ 7개 코스(기본 코스 5개·테마 코스 2개)다. 코스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주요 거점으로 주제의 유사성과 지역 근접성을 고려한 2일 또는 3일의 여정으로 설계됐으며,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방문객이 적었던 문화유산들을 엮어냈다.

특히 전국 주요 산사들이 문화유산의 길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본 코스인 ‘천년 정신의 길’은 경주·안동을 중심으로 코스가 만들어졌다.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를 출발해 계림·월성과 도산서원을 거쳐 안동 봉정사로 이르는 코스다.

‘백제고도의 길’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분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살펴볼 수 있는 코스로 공산성에서 시작해 마곡사와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다.

테마코스인 ‘수행의 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돌아보도록 구성됐다. 마곡사, 법주사, 대흥사, 선암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부석사, 봉정사로 이어지는 코스다.

이밖에도 △소릿길(전북·전남, 인류무형유산) △설화와 자연의 길(제주) △왕가의 길(서울·인천·경기) △서원의 길(한국의 서원) 등도 특성 있는 문화유산 순례길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코스들은 문화유산들이 포함된 지역의 축제와 해당 문화유산에서의 체험·공연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별 방문 코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5대 특별사업’과 ‘7대 연계사업’도 진행된다. ‘5대 특별사업’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대표하는 특별 행사로,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7대 연계 사업’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공연·야행·전시·축제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문화재 야행(전국 36개소)’ 등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5월 26일 서울 환구단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수행의 길’ 등 7개 코스 ‘눈길’
산사와 궁궐 활용 코스 제안
축제·야행·공연 등도 기획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주요 행사와 ‘문화유산 방문 코스’ 등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홈페이지는 6월 중순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유산채널과 자체 유트브·SNS를 통해 문화유산 방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준비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음주 6월 10일자 신문은 쉽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세민 총무원장 원행
중앙종회의장 범해 교육원장 진우
호 계 원 장 무상 포교원장 지홍

대한불교조계종